



2021 M2 호랑의 개인주제 프로젝트

혐오하지 않을 권리

혐오표현 쓰지 않는 나, 제법 젠틸해요



호랑

2003년 02월 12일 탄생

2021년 M1 거꾸로 캠퍼스 입학

거캠 제일의 이지팀 소속!

M1 개인주제 : 호랑이는 채식주의야
사람 되기 프로젝트 진행 중
화가 나면 화를 냈지, 욕은 안 한다

tmi: 매년 7월 29일은 호랑이의 날이다.

혐오하지 않을 권리

혐오표현 쓰지 않는 나, 제법 젠틸해요



목차

혐오표현, 그게 왜?

- 나와 혐오표현의 이야기

혐오표현이 뭐예요?

- 혐오표현의 정의
- 혐오표현, 얼마나 사용하죠?
- 혐오표현, 왜 사용하죠?
- Covid-19와 혐오표현

혐오표현, 왜 쓰면 안 될까요?

- 혐오표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 유머로 소비되는 혐오
- 혐오표현은 표현의 자유일 수 있을까?
- 혐오표현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혐오표현 쓰지 않고 젠틀하게 말하기

- 혐오표현을 막기 위한 사회적 노력
- 혐오표현 쓰지 않는 나, 제법 젠틀해요



떠든사람
호랑



혐오표현, 그게 왜?

나와 혐오표현의 이야기

내가 막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시작했을 때, 버스 정류장에서 학교 가는 버스를 기다리다가 교복을 입은 언니들이 서로를 "씨발년아"라고 칭하는 것을 보게 됐다. 그 언어가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님을 알지만, 순간 놀라 몸이 움찔 했다. 그런데 서로를 욕으로 칭하던 언니들은 이미 익숙한 듯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대화를 이어 나갔다. 그런데 이 뿐만이 아니다. 예전부터 흔히 쓰이던 "~충", "~장애"도, 요즘 자주 들려오는 "잼민이"나 "급식충", "틀딱" 도 마찬가지로 공격적인 비하·혐오의 의미를 담고 있고, 우리가 욕이라고 알고 있는 "병신" 또한 장애인을 비하하는 혐오표현에서 시작되었다.

사람들과 만나는 과정에서 느꼈던 것은 내가 "말"에 민감하다는 것이다. 욕이나 비속어, 혐오표현 등의 폭력적인 언어와 그에 따른 행동을 멋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또래 친구들과 놀다 보면 보이는 폭력적인 말과 행동들이 불편했다. "욕 잘 하게 생겼다"는 얘기를 몇 번 들어봤지만, 아무리 화가 나도, 욕은 해 본 적이 없다. 어렸을 때는 화가 날 때 욕을 하면 시원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몇 번 시도도 해 봤지만, 욕을 하려고 입술을 때는 순간 더 찝찝한 기분이 들 뿐이었다.

거캤에 들어오기 전에 다니던 학교는 "존중"을 중요시 하는 학교였다. 전체 학생이 모여 회의하는 자리에서 "욕 쓰지 않기"를 학교 약속으로 잡기도 했다. 물론 그 약속이 모든 순간에서 지켜졌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욕이나 비속어가 이렇게나 쉽게 쓰이는 줄은 모르고 살아왔다.

말의 힘 실험이 있다. 두 양파를 놓고 각 양파에게 매일 좋은 말과 악한 말을 해줬을 때 좋은 말을 해 준 양파가 더 잘 자라고, 나쁜 말을 들은 양파는 썩었다는 이야기 말이다. 이 결과가 사실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사실이라면 내가 그냥 무심코 던진 말이 어떤 양파를 죽이고 있지는 않았을까? 평소에도 욕은 쓰지 않으려고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내 주변에는 부정적인 말들이 참 많았다.

왜 서로 존중해야 하는 관계에서 혐오표현을 쓰고 있지? 가장 첫 번째로 들었던 의문점이다. 어느샌가 혐오표현은 내 주변에 너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었다. 초등학교 3학년 까지만 해도 "마보 멍청이 해삼 말미잘 똥개"가 가장 큰 욕이었다 (사실 이 표현도 인간을 인간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혐오표현이 맞다. 그런데 이제 귀여움을 곁들인). 그런데 어느샌가부터 주변에서 욕이 들리는 일이 많아졌고, 혐오표현들이 유머적인, 장난의 요소로 쓰이고 있다. 서로를 "씨발년아"라고

칭했던 언니들은, 옆에서 듣기만 한 내가 느끼기에도 불편할 것 같은 표현임에도 기분이 나쁘기는 커녕 서로 웃고 떠들기에 바빴다. 혐오표현이 유머나 장난으로 소비되어 오히려 혐오표현을 사용하는 사람이 "유쾌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다.

주변에서 혐오표현이 들릴 때, 아직까지도 움찔 하고, 불편할 때가 많다. 그러나 "그거 혐오표현이야!" 하고 말 하면 그냥 장난치다가 나온 말인데, 괜히 찬물을 끼얹는 걸까봐 혼자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혐오 표현에 어떻게 대항하는 게 좋을까?

혐오표현은 특정 집단의 외모나 특성을 비하하며 그에 대한 분노를 드러낸다. 대표적인 예시로 "김치녀"라는 단어가 생기게 된 배경을 볼 수 있다. 어렸을 땐 "김치녀"나 "된장녀"라는 말은 뭔가 잘못된 사람들에게 쓰는 줄 알았다. 인터넷을 보면 사람들이 "김치녀"라는 대상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치녀"라는 단어는 '젊은 한국 여성'을 가리키며, '외모와 능력이 부족하고, 남성에게 금전적으로 의지한다'며 확신하고, 이들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나타내고 있었다. 조금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에 대항하며 나타난 표현이 바로 "한남"이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국 남성'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뜻으로 사용되는데, 혐오를 혐오로 받아치고 있는 상황이 참 아이러니 했다. 혐오에 혐오로 대항한다면, 서로에 대한 공격심만 키울 뿐이다.

나는 욕이나 혐오단어를 쓰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 "나한테 혐오표현 쓰지 말아 줘"라는 말은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내가 혐오표현을 쓰지 않는 것 만으로도 나에게 혐오표현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주변에서 혐오표현이 오가기는 하지만, 적어도 나를 향한 혐오 표현은 없었다. '건강하게 혐오에 대항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순간이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혐오하지 않고 혐오에 젼들하게 대항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혐오표현이 뭐예요?

혐오표현의 정의

혐오표현의 개념: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 지역,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집단에게 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차별·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

혐오: 싫어하고 미워함.

생물학적으로는 불결하거나 더러운 것을 피하고자 하는 감정을 말한다. 대상에 대한 인식에 따라 달라지며, 나와 이질적인 것에 대해 인지함으로써 그것을 거부하는 '억겨움'에 대한 감정.

차별: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 지역, 인종, 성적지향 등의 이유로 고용, 교육, 임금 및 수당 지급 등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구별하여 우대,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고,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

그래서 "혐오 표현"이라는 게 뭘까? 내가 한 말이 누군가 듣기에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혐오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까?

최근 "~린이"라는 표현을 두고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린이"라는 단어가 '어린이는 미숙하다'라는 편견을 키운다는 이유였다. "~린이"는 보통 어떤 일이나 분야에서 초보자나 막 시작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는데, 이것이 '익숙하지 않고 미숙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 "어린이는 미숙하다"는 편견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린이"라는 표현이 혐오의 의미로 쓰인 사례가 있다. '부린 이(부동산 초보)가 와서 설치네'와 같은 표현을 볼 때 "~린이"가 어린이를 무시하는 맥락으로 사용되고 있고, '초등학생' 또는 '급식중' 과 마찬가지로 어린이를 걸림돌이 되거나 통제 불가능하고 문제가 되는 사람으로 치부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린이"가 활발히 사용될 때,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어린이를 낮춰보는 문화를 습득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 의견 또한 존재한다. 편견을 조장한다는 시선이 "지나친 불편함"이라는 것이다. "~린이"라는 표현은 어린이처럼 성장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서 사용되는 말이며, 보통 타인을 향해 사용되기보다 스스로가 초보일 때 붙여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혐오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린이"라는 단어가 '어린이는 미숙하다'라는 편견을 키울 수 있고, 어떤 경우 혐오의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이 표현이 스스로를 향해서 사용될 때, 혐오의 의미를 담아 사용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린이"라는 단어 자체가 혐오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어떤 표현을 혐오 표현으로 봐야 할까? 혐오 표현을 찾을 때, 혐오 표현을 구별할 기준을 세워보았다.

포함할 표현

타인을 향한 증오, 경멸, 혐오, 적대감 등이 드러난 표현
편견, 불공평, 불이익, 차별대우를 불러일으키는 표현

제외할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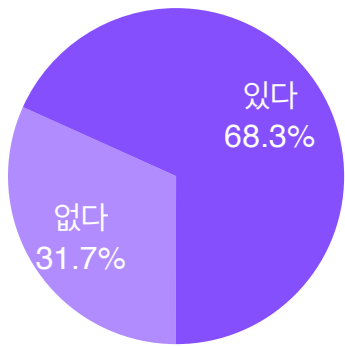
자기혐오, "~린이" 등 혐오가 아닌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 표현

혐오표현, 얼마나 사용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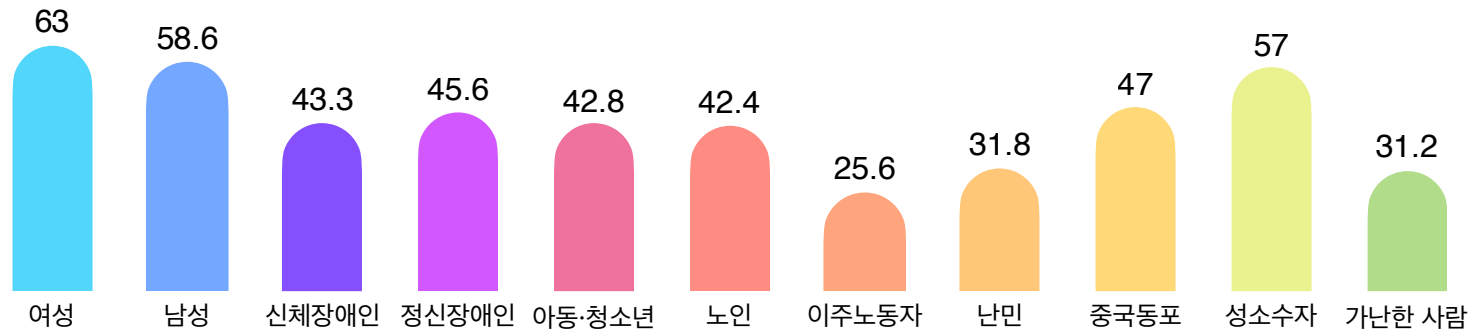
국가 인권 위원회 : 혐오표현에 대한 청소년 인식조사(2019. 05)

혐오표현 경험

혐오표현 경험한 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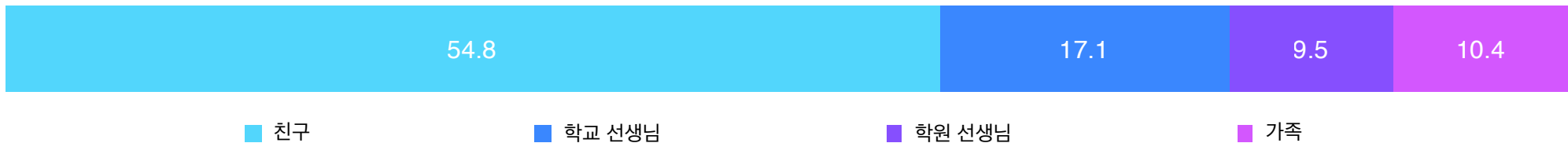
대상별 혐오표현 경험 빈도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혐오표현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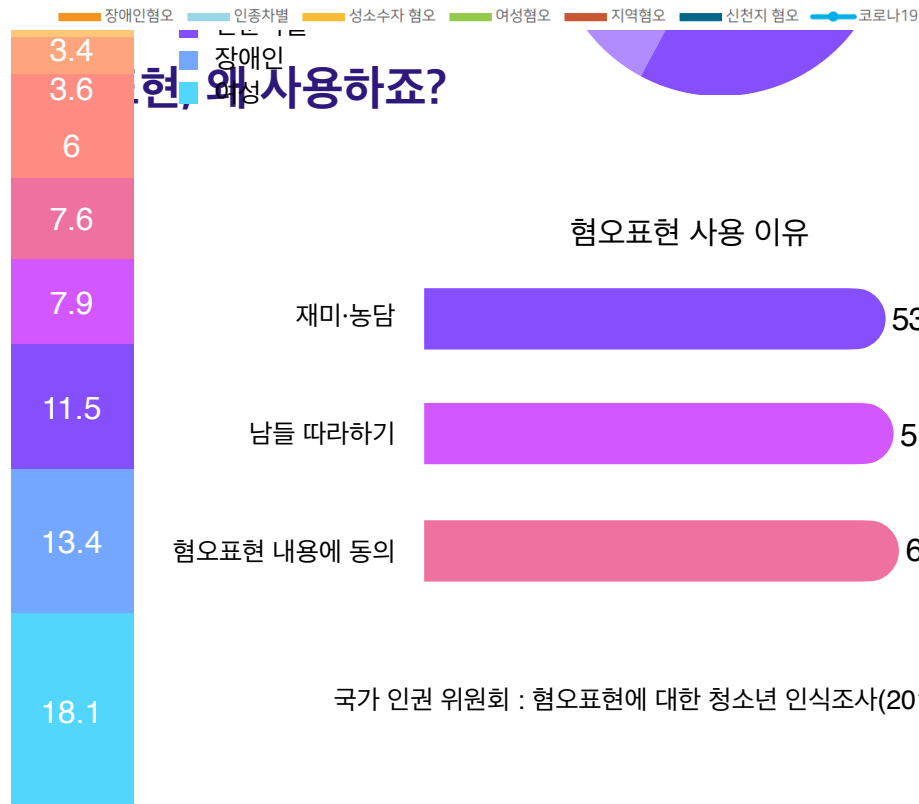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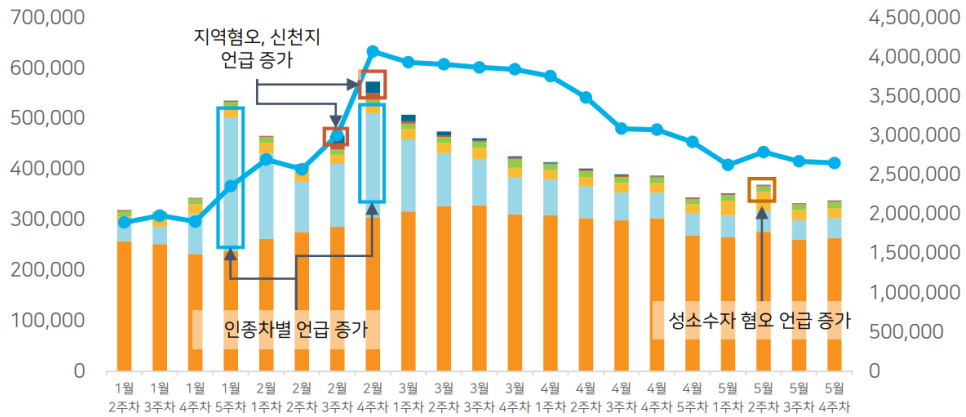


주체별 혐오표현 경험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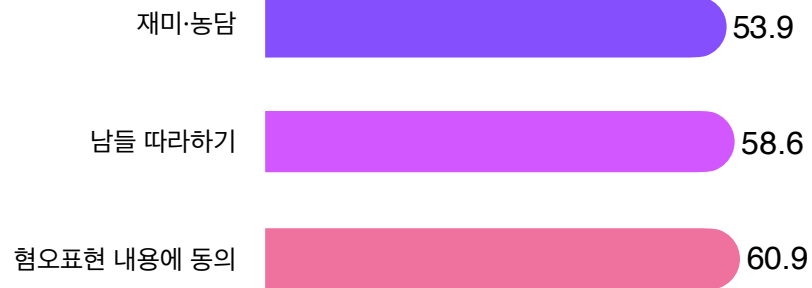


혐오표현 사용

코로나19와 혐오발언 언급량 비교



혐오표현 사용 이유



국가 인권 위원회 : 혐오표현에 대한 청소년 인식조사(2019. 05)

대부분의 청소년이 일상에서 혐오 표현을 경험·사용하고 있다. 혐오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그와 비교해 나는 우월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혐오 표현은 주로 사회적 약자를 향해 이뤄지며, 혐오 표현을 듣는 대상이 위축되도록 만든다. 여성과 남성,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아 사회 구성원 모두가 혐오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혐오 표현으로 자주 사용하는 사례에서, 없음·모름의 비율이 높았던 것, 친구를 통한 혐오 표현 경험이 높았던 점, 재미와 따라하기라는 사용이유를 봤을 때, 혐오 표현이 농담처럼 쓰이고 있어 혐오라기보다는 재미 요소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을까 예측해 볼 수 있다. 혐오 표현에 대한 인식이 무뎌져 혐오 표현으로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혐오 표현에 자주 노출될 경우, 혐오 표현에 동의하여 해당 혐오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 비중이 높았다.

COVID-19와 혐오

혐오 표현은 말이 아니라 행동과 상황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어떤 특징을 가진 타인을 놀리거나, 혐오하는 의사를 표현하는 등의 방식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시안 혐오"이다. 태어난 곳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시안이라는 이유만으로 폭력과 위협을 당하고 있다. 최근 재조명되고 있는 이 혐오는 코로나가 시작하면서 함께 시작되었다. 코로나 초기, 코로나가 "우환 폐렴"이라고 소개되면서, 이는 특정 집단, 중국인을 향한 혐오로 이어졌고, 곧 이 혐오가 "아시안 혐오"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런 혐오는 우리나라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팬데믹 이후 온라인상의 혐오 표현을 정리한 국가 인권 위원회의 보고서를 보았을 때, 팬데믹 이후 혐오 표현이 더 증가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코로나의 위험도가 높아질 때, 인터넷에서 혐오 표현 또한 함께 증가했다는 것이다. 코로나 초기에는 "우환 폐렴"이라는 이름과 함께 중국인에 대한 인종차별로, 신천지로 인한 인한 집단 감염이 있던 시기에는 특정 종교에 대한 혐오가, 대구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을 때는 지역혐오가, 성 소수자 클럽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을 때에는 성 소수자 혐오가 증가했다.

사회에 불안과 우려가 있을 때, 책임을 사회적 약자나, 불안에 영향을 미친 특정 집단에 책임을 떠넘겨 비난하는 일이 일어난다. 혐오 표현 또한 마찬가지다. 바이

러스에 대한 공포가 특정 집단을 향한 차별, 혐오 발언을 정당화하는 요인으로써 작용하였다.

불안이 혐오로 나타난 경우는 이뿐만이 아니다. 과거 흑사병에서도 흑사병의 원인을 마녀에게 돌려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노인을 대상으로 혐오와 인권침해가 이뤄졌으며, 코로나뿐만 아니라 난민 혐오에 대한 문제도 이런 불안에서 왔다고 할 수 있다. 난민에 대한 두려움이 난민에 대한 이해를 막고, 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나 테러리스트로 낙인찍었다. 이렇듯 혐오 표현은 위기 상황에서의 불안을 타인에게 돌림으로써 본인의 불안과 분노를 풀어내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런데 사실 이는 팬데믹 상황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급식 먹는 학생"이라는 단어를 들어 봤을 것이다. "충"이 들어갔으니 일단 혐오의 의미가 있는 것 같기는 하다. 그런데 왜 하필 "급식"일까? 이 말이 등장한 배경을 보면 알 수 있다. 한창 무상급식 지원을 두고 논쟁이 있던 2011년. '청소년은 사회에 기여하는 것도 없으면서 복지는 챙겨 받는다'며 생긴 말이 급식충이다. 무상급식은 '공짜 밥'을 연상시키는데, 사실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는 것은 청소년이 아니며 무상급식은 공짜 밥이 아니다. 청소년의 급식비를 청소년이 직접 내는 것이 아닌 부모가 내기 때문이고, 무상급식 지원비는 부모가 낸 세금으로 이루어진다. 또 무상급식은 혜택을 주기 위함이 아닌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의 청소년에게 도움을 주려고 시작된 정책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 없이 "청소년은 세금도 안 내면서 공짜 밥을 먹는다"는 이유로 청소년을 "급식충"이라는 단어로 혐오하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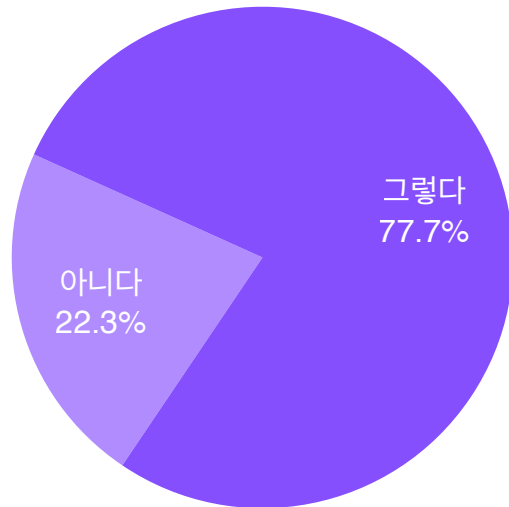
자신이 불리하거나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인식될 때 타인을 위한 혐오는 더 커진다. 실제로 많은 혐오 표현의 유래를 살펴봤을 때,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에 불만을 느껴 타자를 혐오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혐오표현, 왜 쓰면 안될까요?

혐오표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혐오표현을 규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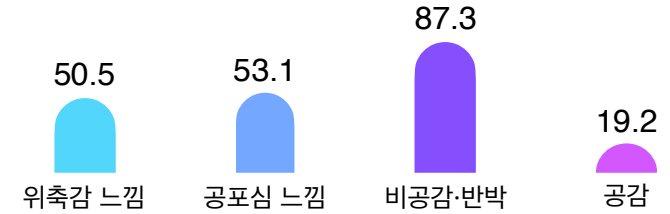


혐오표현 노출 시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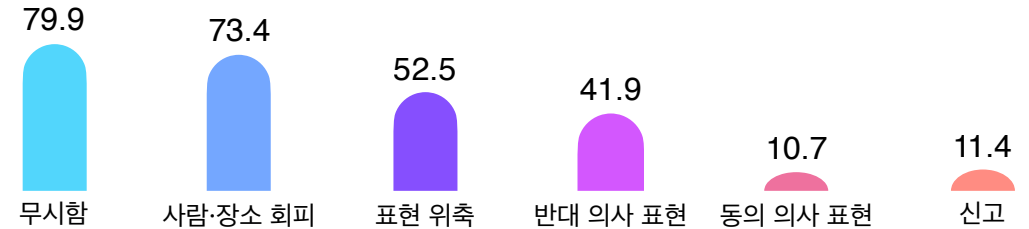


혐오표현을 접한 후

혐오표현 경험 이후 심리·인식



혐오표현 경험 이후 행동



혐오표현 관련 전망 동의 정도



국가 인권 위원회 : 혐오표현에 대한 청소년 인식조사(2019. 05)

유머로 소비되는 혐오

혐오 표현은 "유머"로 소비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혐오 표현이 "유머"로 소비됨으로써 우리는 타인을 혐오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로 "재미로" 혐오하고 있다. 성별에 대한 혐오가 이루어질 때, 여성은 자신과 성별이 다른 남성을 비하하는 유머를 더 재미있다고 평가했고, 남성 또한 여성에 대한 비하를 더 재미있다고 평가하였다.

여기서 "유머"가 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유머란 남을 웃기는 말이나 행동으로 보통 친근감을 띤다. 좋은 뜻을 담아 활용될 때는 좋은 설득, 의사소통의 도구가 될 수 있지만, 혐오의 뜻을 담았을 때, 특정 집단을 조롱하는 것을 합리화하고, 다른 이들에게 그 대상을 혐오하도록 만들 수 있다.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해당 집단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여성에 대한 비하 유머는 여성을 향한 차별로 이어졌고, 이런 성차별적 유머를 재미있다고 생각할수록 여성을 향한 폭력을 더 쉽게 용서하거나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혐오가 유머로 소비될 때, 유머는 혐오를 '가벼운 농담'으로 만들어 혐오를 확산시킬 수 있다. 분명 혐오의 뜻을 담고 있음에도 재미 요소로 여겨져 혐오라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또 혐오 표현/유머의 대부분의 대상이 '열등한 집단'으로 소비가 되면서, 상대방을 비하하는 동시에 우월감을 느끼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런데, 실제로도 그랬다. 친구 중 "말을 잘하고 재밌다"라는 이미지가 있는 친구는 oo충이라는 말을 자주 쓰곤 했고, 학교 급식을 좋아하던 친구에게 그 친구가 급식충이라고 붙여준 별명을 곧 다른 친구들도 쓰기 시작했다. 그런데 사실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처음에는 단순 별명에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유머는 공격적인 요소로 쓰이기 시작했다. 학교 폭력으로 다뤄질 만큼 심하지는 않았지만, 학교 선생님의 제재가 있기 전까지 이 "급식충"이라는 별명은 그 친구의 체형과 연관되어 친구의 몸을 비하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혐오표현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혐오 표현이 유머로 소비가 되며 생기는 문제를 살펴보면 혐오 표현이 담긴 유머를 재미있게 느낀 사람일수록, 해당 대상을 향한 폭력을 인정하고 이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혐오 표현을 사용하고, 혐오하는 것이 실제로도 범죄로 이어지기도 하는 걸까?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알아볼 수 있을 것 같다. 2016년 5월, 강남역에서 여성이 살해되었다. 용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여성들에게 무시를 당해 살해했다"라고 말했다고 알려졌고, 여성을 혐오해서 일으킨 "여성 혐오 범죄"로 규정되었다. 2020년 8월, "성 소수자들이 싫어서" 성 소수자 차별을 반대하는 광고판을 찢어 훼손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혐오 범죄란 혐오나 편견이 동기가 되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한다. 이런 범죄는 이 사건이 일어난 것만으로도 소수자에게 압박감을 줄 수 있다.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여성들이 "나는 우연히 살아남았습니다"라고 연대한 것처럼 그 범죄의 대상이 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혐오 범죄에 대한 법령이 적용되어 있지 않아 조사나 통계 또한 있지 않지만, 미국 FBI의 사례를 봤을 때, 2018년 한 해만 해도 미국 내에서 혐오 범죄가 8,496건이 발생했고, 독일에서는 2017년에 1만1212건의 혐오 범죄가 일어났다. 2019년 영국에서는 10만3379건으로 집계되었다. 나라마다 분류 기준이 모두 다르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혐오로 인해 일어나는 범죄가 절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혐오 표현은 상대방을 비하하고, 위협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그 과정에서 타인에게 심리적 압박감과 억압을 줄 수 있다. 이가 유머로 소비가 될 때, 혐오 표현은 더 빠르게 퍼지고, 이는 혐오의 확산으로 이어진다. 또 이런 혐오가 깊게 자리잡혔을 때, 이는 혐오대상을 향한 폭력 등의 범죄로 이어지거나, 배척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범죄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혐오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다. 내가 혐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그 표현만으로 타인을 차별하고, 배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런 혐오가 전파가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많은 사람을 혐오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나 또한 혐오 당하고 있을지 모른다.

혐오표현은 표현의 자유일 수 있을까?

법률상에서 혐오 표현의 개념과 판단 기준은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 지역,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게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표출하거나, 멸시·모욕·위협하는 행위, 혹은 차별과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선동하는 행

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혐오 표현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표현의 자유란 무엇일까? 누군가를 차별하고, 혐오하고, 피해를 주는 표현이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하에 인정될 수 있을까? 자유란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자유"라는 권리를 주장한다면, 먼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로 혐오 표현을 사용하는 순간부터 그 대상의 특성을 규정짓고, 위축되게 만들며, 또한 그 표현을 듣는 사람들 또한 같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 대상을 억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 장에서 혐오 표현을 소개하면서, "혐오 표현이란 차별이나 폭력을 정당화하는 표현 이라고 소개 했다. 여기서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기본권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헌법 제 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혐오표현을 막기 위한 사회적 노력

혐오 표현이 다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여전히 혐오 표현 규제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이다"라고 하는 반대 의견이 있지만, 혐오 표현을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국가 인권 위원회에서 진행한 국가 인권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7%가 "혐오 표현을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실제로 프랑스와 영국, 독일,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위협하는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이슈가 된 <차별금지법>에서도 혐오 표현의 규제에 대한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혐오 표현이 더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혐오 표현은 그 표현이 얼마나 과격한가를 떠나 그 자체로 문제이다. 의식적이든 그렇지 않던 혐오를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누군가를 위축시키거나 위협할 수 있다. 누구나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누구나 혐오,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누구나 혐오할 수 있지만, 동시에 혐오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나는 그동안 내가 "프로 불편러"인가? 하는 생각을 꽤 많이 했다. 혐오 표현에 대해 나만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어쩌면 나는 내가 혐오 받고 싶지 않아서 그런 상황들을 불편해했는지도 모르겠다. 어찌 됐든 혐오 표현은 문

제이니까, 꼭 법으로 규제하지 않더라도 내 혐오를 줄이고 주변의 혐오를 불편해하는 것만으로 혐오와 차별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혐오표현 쓰지 않고
젠들하게 말하기

혐오표현 쓰지 않는 나, 제법 켄틀해요

나는 내가 혐오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래도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혐오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그래서 혐오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혐오 표현과는 별개일 수 있지만, 내 말이 누군가에게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누군가를 평가하는 것이 조심스러웠다.

나는 어렸을 때 '너 참 힘이 세다'는 말을 좋아했는데, '너 여자애치고 힘이 세구나'하는 말은 어딘지 모르게 기분이 나빴다. 힘이 세면 힘이 센 거지 왜 '여자애'라는 단어가 앞에 붙어야 했을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나니 이 표현 또한 '여자아이는 힘이 없다'고 규정짓는 표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여자애치고는"이라는 표현이 불편했던 것도 그 이유 때문이었음을 알았다) 예전부터 욕이나 비속어, 혐오 표현 뿐 아니라 내가 불편함을 느꼈던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 나 역시도 꽤 많은 혐오 표현을 쓰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어떤 옷을 살지 한참을 고민하던 친구에게 "결정장애"라는 표현은 썼고, 사춘기라는 말을 놔두고 굳이 중2"병"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답답한 상황에서 "암 걸릴 것 같다"라는 말을 쉽게 사용했다. 좀 충격적이었다. '이게 혐오 표현 이라고?', '내가 혐오 표현을 쓰고 있었다고?' 말과 차별에 민감하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혐오 표현을 내뱉고 있었다.

내가 혐오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는 내가 혐오 받지 않기 위해서이다. 혐오가 남발하는 사회에서 나는 내가 가진 특징만으로도 너무나도 쉽게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여성이고, 청소년이고, 어렸을 때부터 대안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검정고시를 제외한다면 무졸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 어릴 때는 급식 먹는 학생이라는 말을 들었고, 늙어서는 "틀딱"이라 불릴지도 모른다. 급식충이라는 내가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먼저 혐오를 줄이고, 대항한다면, 적어도 나를 향한 혐오가 줄어들 수는 있을 것 같다.

내가 쓰는 표현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중요하다. 나와 타인의 권리를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혐오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도 유쾌하게 말 할 수 있다면, 나는 꽤 켄틀하고, 멋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친구가 쓰는 혐오 표현이 재미있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그 표현이 멋있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새파

랴게 어린놈이"라며 손가락질하는 어른을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얼마 없을 것이다.

혐오하지 않고, 혐오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득할 수 있다면 이는 혐오에 바르게 대항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혐오 표현에 대항해야 하는 이유를 찾았다는 것이다. 나는 애초에 혐오 표현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지만, 혐오 표현을 마구 남발하면서 웃고 즐거워하는 상황이 불편했다. 그러나 앞서 말했던 것처럼, 괜히 상황이 어색해질까 봐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 그러나 프로젝트를 마친 지금, 내가 했던 혐오에 반성할 수 있고, 혐오하면 안 되는 이유를 당당히 말 할 수 있다.

출처

단어 정의에 사용된 모든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코로나 19와 혐오의 팬데믹: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홍성수. 2018_

혐오가 유머를 만날 때 : 타인 혐오를 증폭시키는 유머와 한국 사회의 젠더갈등에 대한 함의(연지영, 이훈. 2020)

지금, 또 혐오하셨네요(박민영. 2020)

국가 인권 위원회 : 혐오표현에 대한 청소년 인식조사(2019. 05)

한국 엠네스티: 혐오에 맞서는 유스를 위한 액션 툴 키

영상

혐오표현을 멈추세요! : 국가인권위원회

세바시 790회 혐오표현은 어떻게 사회를 파괴하는가 :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한국 엠네스티: [혐오대항교육 1, 2]